모든 글쓰기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장 희 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매주 50명 이상이 글쓰기에 대한 고민으로 글쓰기교실을 찾는다. 상담 내용은 글의 주제, 개요, 구성부터 각주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할지를 모르는, 글쓰기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1 과학비평 에세이를 써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할지 감조차 못 잡겠어요. 어떤 주제로 써야 할까요. 글의 개요는 어떻게 짜죠.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주장은 어느 부분에다 넣어야 할까요.

#2 내일까지 리포트 제출해야 하는데,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나요. 제목은 적당한가요. 내용적 측면이나 문법적 측면에서 오류는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글의 흐름은 어떤가요. 각주 인용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다시 봐주세요.

#3 구성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애매해서 안 썼는데 이런 식으로 끝내도 상관이 없나요. 분량을 두 장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글을 줄여야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4 잘 써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권의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핵심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서평이 내용 정리 수준에서 머물다보니 깊이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은 인문계보다는 이공계 학생들이 강하다. 상담을 했던 이공계 학생 중에는 강의계획서에 글쓰기 과제가 있다는 이유로 수강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학생은 글쓰기도 걱정이지만 그것 때문에 학점이 낮게 나오는 것도 걱정이

라고 했다. 그러나 수강 신청을 포기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글쓰기를 피할 수는 있어도 글쓰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학생들은 시험부터 졸업논문 쓰기에 이르기까지 글쓰기로 자신을 증명해야할 때가 많다.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글쓰기는 더욱 중요해진다.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종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 매일 기획서나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교편을 잡게 되면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계획서부터 논문과 특허, 책 저술까지 글쓰기와 무관한 일이 거의 없다. 글쓰기를 피하고 싶은 이공계 학생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글쓰기의 두려움은 극복해야만 한다.

사실 이공계 학생들이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책을 읽고 글을 쓸 기회가 적다.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 학과에서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해당 전공의 이론과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거의 전부일 때가 많다. 학생들 역시 전공지식을 익히고 더 좋은 연구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둔다. 과학기술 원리 이해에 우선순위를 둘 뿐 그 영향에 대한 자신만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쉽다. 전공 공부 이외에 글을 쓸 여유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글쓰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공계 학생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문제의식의 부재이다. 글은 어떤 사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쓸 수 있다. 자신만의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글쓰기의 압박감에 괴로워 하다가 결국 마감 기한에 맞춰 허겁지겁 글을 채워 마무리하게 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글감)이 결과물(글)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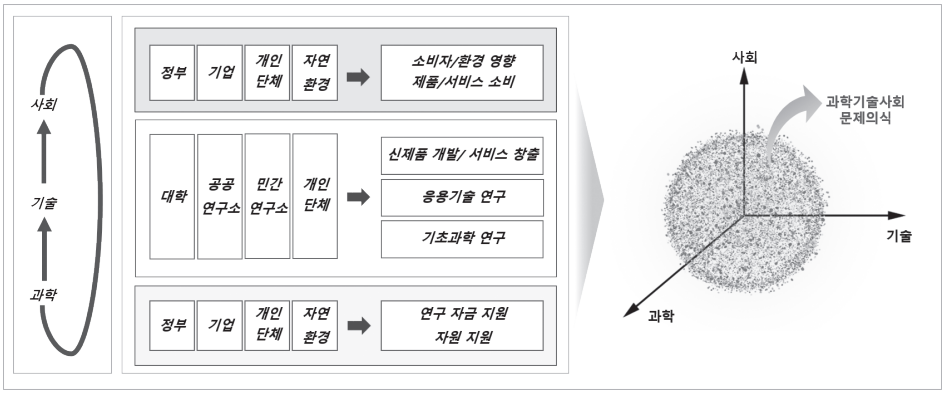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일단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잘 알고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전공 분야라고 해도 전공지식만으로 그 분야를 잘 안다고 할 수 없다. 본인 전공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연구 개발되고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지 과학-기술-사회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과학기술 지식을 익히는 수준에서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는 누가 지원하고 어떻게 개발되는지, 과학기술이 사회에 방출되었을 때 유용한지, 갈등을 불러오지 않는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과학-기술-사회를 조망할 때 비로소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과학-기술-사회'는 유기적인 결합체다. 기초과학 연구는 정부,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시작된다. 지원을 받은 대학, 연구소, 기업, 개인 등은 기초 연구

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 창출된 연구 성과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환된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이를 평가하고, 그것이 다시 과학기술 개발에 영향을 준다.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다.

[그림] 과학-기술-사회 작동 원리



이공계 학생들을 상담해보면 이런 이해관계에 대해 고민을 한 학생을 만나기 어렵다. 과학 원리나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전공에 대한 높은 이해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과학기술의 강점에만 주목하기 쉽다. 전공만 파고드는 것은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줄 모르는 것과 같다. 과학기술 개발이 왜 필요한지,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 시야를 확장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의 원리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연구되어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는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전 방위적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고민을 하다보면 글을 쓸 때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지 무슨 주제로 써야할지 보인다. 과학기술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의 정책 보고서를 조사할 수 있다. 과학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 논문, 특허, 기술동향 보고서, 미래예측 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다. 과학기술 영향 평가에 관해서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소비자단체 보고서, 법원 판례, 과학기술학 서적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명확해 진다.

문제의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이 가져야 할 고민이다. 평소 고민을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글의 주제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주제를 잡으면 글의 절반은 쓴 것이다. 글쓰기에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고, 매력

적인 문장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장력은 많이 쓰다보면 누구나 숙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의식은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주의 핵' 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글이든 글쓰기의 핵심은 '문제의식'이다.